

## 광주는 [지지않는 불꽃]이다

**팀명** 산슈

**소속**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팀원** 이주영, 김아연

광주광역시

청춘이 말한다.  
광주는 지지 않는 불꽃이다.



불꽃 타투스티커 도안 ▶



**실행방안**  
충정로 및 대학가에서 불꽃 타투 스티커 행사를 실시한다.  
자신 마음속의 불씨는 무엇인지 메시지를 적고 한데 모아 붙여 거대한 불꽃의 이미지를 만든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불꽃 타투 스티커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대상으로 불꽃 인증 이벤트를 통해 SNS 좋아요 다득표자에게 광주 특산품을 증정한다.

**기대효과**  
: 청년층을 대상으로 광주의 상징인 불꽃을 중심으로 자신의 열정을 키워드로 적어 광주의 정신에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SNS 이벤트를 통해 타겟층의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작품설명

광주의 열정과 활기를 불꽃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 청년들의 열정과 연결시켰다. “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슬로건은 옛날 광주에서 일었던 민주주의의 불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청년들의 가슴 속에 현실에 지지 않는 열정과 활기가 있음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뜻을 담았다. 또한 청년들에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타투스티커를 이용한 캠페인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불꽃에 대해 포스트잇에 적는 참여 과정을 통해 광주의 불꽃과 청년들의 불꽃의 의미적 연결을 의도하였다.